

국어사전에 수록된 접미사 비교 검토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趙南浩 · 盧明姬*

I. 서론	III. 한 사전에만 수록된 접미사
II. 두 사전의 접미사 수록 현황 및 분류 기준	IV. 두 사전에 모두 수록된 접미사
	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접미사 수록 현황을 분석하였다. 『표준』의 354개 접미사와 『고대』의 347개 접미사를 비교한 결과 『표준』에만 수록된 접미사는 83개, 『고대』에만 수록된 접미사는 60개가 확인되었다. 『표준』에만 수록된 접미사에는 더 분석 가능한 접미사(‘-ㅁ직스럽-, -ㅁ직하’ 등)를 하나의 표제어로 올린 것과 동일한 한자를 명사와 접미사 두 가지로 올린 경우(‘-가량06(假量), -곡08(曲)’ 등)가 있었다. 두 사전에 공통으로 수록된 접미사는 뜻풀이 범위를 비교하였다. 두 사전 모두에서 고유어 접미사보다 한자어 접미사의 뜻풀이 범위가 상대 사전과 비교하여 넓은 예들이 많았다. 한자어 접미사의 경우 뜻풀이 보완이 이루어져 추가된 뜻풀이가 확인되는 것이다. 두 사전의 뜻풀이 범위가 동일한 접미사 중 184개가 뜻풀이 개수까지 동일하였다. 뜻풀이 개수는 다르지만 범위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는 『표준』보다 『고대』가 뜻풀이를 세분한 예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고대』가 『표준』보다 뜻풀

* 명지대 부교수, 제1저자 · 성균관대 교수, 공동저자

이를 더 추가하거나 세분하여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제어 : 접사, 접미사, 사전 등재, 사전 뜻풀이, 다의어, 동음어

I. 서론

본고는 1999년에 간행된 『표준국어대사전』과 2009년에 간행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¹⁾에 수록된 접미사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조남호·노명희(2021)의 국어사전에 수록된 접두사 목록 비교에 이어 두 사전의 접미사 수록 양상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남호·노명희(2021)에서는 연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현대국어 접사 목록을 만들기는 쉽지 않으나 어휘 교육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접사 목록의 선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접사 연구 성과를 반영한 최근 사전들에서 접두사 표제어를 추출·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덧붙여서 목적에 맞는 접사를 선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두 사전의 접두사 목록에 대한 비교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두 사전의 접미사 수록 양상을 비교 검토하고, 두 사전에 모두 수록된 접미사를 대상으로 차이가 나는 뜻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예를 보이고자 한다.

비교를 진행하고 결과를 정리한 방법은 조남호·노명희(2021)과 동일하다. 접두사와 접미사를 함께 정리했기 때문이다. 자세한 정리 방법은 조남호·노명희(2021)로 미루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대강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한다. 『표준』과 『고대』는 현재 모두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하고 계속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2018년 7월 하반기 시점의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비교했다. 그때 본고를 작성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²⁾ 정리한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준』은 ‘자세히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접사만 일괄하여 검색했고, 접사 표제어만 검색할 수 없는 『고대』는 홍종선·김양진(2012)에서 제시된 접사 표제어 목록을 기준으로 일일이 검색을 했다.³⁾ 아울러 『표준』 시디판과 『고대』 종이사전도 확인하여 인터넷

1) 이하 각각 『표준』과 『고대』로 약칭한다.

2) 『표준』은 국립국어원(stdweb2.korean.go.kr)에서 검색했고, 『고대』는 다음(dic.daum.net)에서 검색했다.

3) 『표준』은 2019년 3월 11일에 개편되면서(stdict.korean.go.kr) 옛말, 방언, 북한어가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어깨번호가 달라져 본고에서 제시하는 어깨번호가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렇지만 본고의 대상이 되는 접미사 표제어들이 개편을 통해 크게 바뀌지 않았고, 또 개편 이전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도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료를 새로 정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어깨번호도 검색 당시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에 공개된 자료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였다. 두 사전에 수록된 접사를 정리한 후 양자를 대조하면서 수록 현황과 뜻풀이 비교를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정리된 결과를 토대로 먼저 두 사전의 접미사 수록 현황을 살펴보고, 두 사전에 모두 수록된 접미사와 한 사전에만 수록된 접미사로 나누어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두 사전에 모두 수록된 접미사는 다시 뜻풀이의 범위를 비교하여 뜻풀이 범위가 같은 접미사와 뜻풀이 범위가 다른 접미사를 구별한다. 뜻풀이 범위가 다른 접미사는 차이 나는 뜻풀이를 제시하여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한다.

Ⅱ. 두 사전의 접미사 수록 현황 및 분류 기준

『표준』과 『고대』의 접미사 수록 현황을 어종별로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⁴⁾ 이는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옛말, 북한어, 방언 및 비표준어를 제외할 숫자이다.

〈표 1〉 『표준』과 『고대』의 접미사 수록 현황⁵⁾

	접미사		계
	고유어	한자어	
『표준』	111→115	226→239	337→354
『고대』	147→148	199	346→347

따라서 본고는 『표준』의 고유어 접미사 115개, 한자어 접미사 239개를 합한 354개, 『고대』의 고유어 접미사 148개, 한자어 접미사 199개를 합한 347개 접미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표준』의 354개 접미사와 『고대』의 347개 접미사를 두

4) 〈표 1〉에 제시된 숫자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는 조남호·노명희(2021)에서 자세히 설명했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5) 인터넷에 사전이 공개된 후에 접미사가 추가 혹은 삭제가 되면서 개수가 바뀐 것은 ‘→’ 뒤에 제시하였다. 『고대』 ‘한자어’는 종이사전과 인터넷판의 접미사 목록이 동일하여 ‘→’가 없다.

사전의 표제어 수록 여부나 동음어 여부 등에 따라 다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표준』과 『고대』의 접미사 수록 양상⁶⁾

분류	두 사전에 있는 접미사	두 사전에 있으나 『고대』가 동음어로 나눈 접미사	두 사전에 있으나 『표준』이 동음어로 나눈 접미사	『표준』에만 있는 접미사	『고대』에만 있는 접미사	계
개수	254	13	2	83	60	412

<표 2>에서 두 사전에 있으나 『고대』가 동음어로 나눈 접미사가 『표준』 기준 13개인데 『고대』를 기준으로 하면 31개의 접미사가 된다.⁷⁾ 또 『표준』이 동음어로 나눈 접미사는 『고대』 기준 2개인데 이는 『표준』을 기준으로 하면 4개가 된다.⁸⁾

두 사전의 접미사 수록 양상을 비교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한 사전에서만 접미사로 인정한 것은 구분하는 데 비교적 어려움이 없지만 두 사전에 모두 수록된 것 중에는 의미 범위가 같은 경우도 있고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 좀더 복잡하다. 먼저 본고에서 접미사의 같고 다름을 어떻게 판단하고 분류했는지 그 기준을 밝히도록 한다.

이미 지적했듯이 한 사전에서만 접미사로 인정한 것은 분류가 어렵지 않다. 다만 형태가 다르지만 편찬 태도의 차이에 불과할 뿐 같은 접미사로 보아야 할 것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두 사전은 용언을 만드는 접미사에 ‘-다’를 붙인 형태를 표제어로 잡을지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⁹⁾¹⁰⁾

6) 조남호·노명희(2021:12)에서는 접사 전체를 대상으로 이 분류에 따라 개수를 제시한 바 있다. 본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접미사에서 동음어 하나의 처리가 잘못된 것이 뒤늦게 확인되어 개수를 정정한다. ‘두 사전에 있는 접사는 406개가 아니라 405개이며, 『고대』에만 있는 접사는 103개가 아니라 104개이다.

7) -간16(間, -간18/-간19), -기-38(-기다9/-기다10/-기다11), -기39(-기28/-기29), -되다05(-되다5/-되다6), -료02(料, -료1/-료2), -리-18(-리다1/-리다2/-리다3), -배기05(-배기4/-배기5), -이29(-이27/-이28/-이29), -이-31(-이다5/-이다6/-이다8), -이32(-이30/-이31), -지25(地, -지18/-지19), -추-09(-추다5/-추다6), -히-06(-히다3/-히다4/-히다5)

8) -이30/-이33(-이26), -째01/-째02(-째)

9) 본고에서 인용하는 『표준』이나 『고대』의 사전 내용은 인터넷판을 기준으로 하되 본고의 논의와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인용한다. 표제어의 표기나 어께번호는 사전의 것을 그대로

- (1) **-으키-** 《동사 ‘일다’의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일으키다.
- (1') **-으키다** 동사 ‘일다’의 어근에 붙어, ‘그 행위를 일어나게 하다’의 뜻을 더하여 사동의 타동사를 만드는 말.

(1)과 (1')은 ‘-다’ 결합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같은 접미사임이 분명하므로 형태가 동일한지 판단할 때 ‘-다’의 결합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관련이 깊은 접미사이지만 편찬 태도의 차이로 두 사전에서 표제어를 달리 선택하여 수록한 접미사들도 있다.

- (2) 가. **-ㅁ직스럽-**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바람직스럽다.
- 나. **-ㅁ직하-**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바람직하다.
- (2') **-ㅁ직**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매우 그러한 상태임’의 뜻을 더하는 말. ㉠ 큼직/바람직.
- (3) 가. **-연25(然)**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인 체함’ 또는 ‘그것인 것처럼 뽐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학자연.
- 나. **-연하다05(然--)** ‘...인 체하다’, ‘...인 것처럼 뽐내다’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학자연하다/균자연하다.
- (3') **-연20(然)** 일부 한자어의 뒤에 붙어, ‘그것인 체함’ 또는 ‘그것인 것처럼 뽐냄’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주로 접미사 ‘-하다’와 결합하여 쓰인다. ㉠ 학자연/균자연.

(2)에 제시된 『표준』에서는 ‘-ㅁ직스럽-, -ㅁ직하-’를 표제어로 올린 반면, (2')에 제시된 『고대』에는 공통 요소인 ‘-ㅁ직’만 표제어로 올라 있다. 이들이 관련된 표제어

따른다. 다만, 제시 형식은 본고에 맞춰 수정하여 인용한다.

- 10) 인용문 숫자가 같지만 “이 없는 것은 『표준』에서 인용한 것이고 “이 있는 것은 『고대』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하 동일하다.

임은 확실하지만 형태의 선택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준』에서는 ‘-ㅁ직스럽-, -ㅁ직하-’를 표제어로 올려 ‘-ㅁ직’을 따로 분석하지 않은 반면 『고대』에서는 ‘-ㅁ직’을 분석하여 올린 것이다.¹¹⁾ 본고는 이러한 태도가 두 사전이 같은 접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들 셋은 한 사전에서만 접미사로 인정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음직스럽-, -음직하-’와 ‘-음직02’, ‘-직하-02’와 ‘-직07’도 동일하다. (3)의 『표준』에서는 ‘-연25’와 ‘-연하다05’를 표제어로 올렸으나 (3)의 『고대』에는 ‘-연20’만 표제어로 올라 있다. ‘-연25’와 ‘-연20’은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두 사전에 오른 접미사로 간주하고 ‘-연하다05’는 한 사전에 오른 접미사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두 사전에 모두 올랐지만 뜻풀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 같은 접미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보도록 한다. 사전의 뜻풀이가 거의 같아서 판단에 어려움이 없는 것들도 있지만, 뜻풀이가 더 세분되거나 상대 사전에 없는 뜻풀이가 추가된 것, 또는 상대 사전과 달리 동음어로 분리된 것 등 복잡한 사례들도 있다. 이들은 뜻풀이가 같은 의미 범위라고 판단되면 같은 접미사로 보았다. 뜻풀이의 개수나 동음어 분리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 (4) **-경26(鏡)** 《일부 명사 뒤에 붙어》 ①‘무언가를 보기 위한 기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망원경/식도경/후두경. ②‘안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근시경/노인경/원시경. ③‘거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반사경/구면경/회전경.
- (4) **-경17(鏡)**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거기에 쓰는 유리제품이나 거울 혹은 안경’의 뜻을 더하는 말. 『망원경/후두경/근시경/반사경/회전경.
- (5) **-처06(處)** 《일부 명사 뒤에 붙어》 ①‘곳’ 또는 ‘장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접수처/판매처. ②‘사무를 맡아보는 부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교무처/법제처/총무처.
- (5) **-처5(處)** ①일부 명사의 뒤에 쓰여, 그 일을 하는 장소의 뜻을 더하는 말. 『거래처/구입처/발행처/접수처/은둔처/피난처. ②일부 명사의 뒤

11) (2')에서 ‘-ㅁ직’의 예로 제시된 ‘큼직’과 ‘바람직’은 사실 성격이 다르다. 뒤에 ‘스럽다’가 결합할 수 있는 ‘-ㅁ직’은 타동사 어기에 결합한다는 제약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ㅁ직’은 일부 형용사 어기와 결합하여 ‘큼직큼직’처럼 첩어가 가능하고 ‘큼지막’처럼 다시 ‘막’의 어기가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ㅁ직’은 표제어를 분할할 필요성이 있으나 여기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논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임동훈(2006) 참조.

에 쓰여, 그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뜻을 더하는 말. 『기획처/교무처/총무처/관리처/홍보처. ③일부 명사의 뒤에 쓰여, 그 일을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뜻을 더하는 말. 『법제처/보훈처.

(4)와 (4')을 비교해 보면 『표준』의 뜻풀이가 더 세분되었고, (5)와 (5')을 비교해 보면 『고대』의 뜻풀이가 더 세분되었다. 그렇지만 상대 사전과 뜻풀이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런 경우는 의미는 같은데 단지 뜻풀이만 세분된 것으로 보았다. 뜻풀이의 세분화 정도가 다를 때는 용례로 제시된 파생어가 동일할지 여부를 의미 범위 판단의 중요한 한 기준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5)는 2개의 뜻풀이, (5')은 3개의 뜻풀이가 있다. 그런데 둘을 비교하면 (5)의 ②번 뜻풀이가 (5')에서는 ②와 ③으로 나뉜 것으로 볼 수 있다. (5)의 ②번 뜻풀이 용례 중에서 '교무처, 총무처'는 (5')의 ②번 뜻풀이에서, '법제처'는 ③번 뜻풀이에서 용례로 제시되었다.

- (6) -히-06 ①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묵히다/굳히다/굽히다/젓히다/앉히다/읽히다/밝히다. ②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막히다/달히다/뿔히다/땀히다/엷히다/엷히다/맑히다. ③ 《일부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괴롭히다/볶히다/넙히다.
- (6) 가. -히다3 흔히 'ㄱ', 'ㄷ', 'ㅂ', 'ㄹ' 등의 자음으로 끝나는 일부 타동사 어근 뒤에 붙어, '어떤 대상이 그렇게 되다'의 뜻을 더하여 자동사로 만드는 말. 『먹히다/잡히다/맑히다.
- 나. -히다4 흔히 'ㄱ', 'ㄷ', 'ㅂ', 'ㄹ', 'ㄴ' 등의 자음으로 끝나는 일부 자동사나 타동사 어근 뒤에 붙어,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다'의 뜻을 더하여 타동사를 만드는 말. 『입히다/읽히다/앉히다.
- 다. -히다5 흔히 'ㄱ', 'ㄷ', 'ㅂ', 'ㅍ' 등의 자음으로 끝나는 일부 형용사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한 상태로 만듦의 뜻을 더하여 형용사를 타동사로 만드는 말. 『굳히다/넙히다/좁히다.

(6)과 (6')은 뜻풀이 개수가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동음어로 구분이 된 사례이다. 또한 뜻풀이도 많이 달라 보인다. 그렇지만 둘을 비교하면 실제로는 (6)은 '사동', '피동' 같은 문법 용어를 사용하여 풀이하였지만 (6')은 문법 용어를 풀어서 자세하게

풀이한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또한 (6) ①, ②, ③의 뜻풀이가 (6')에서 각각 별개의 동음어로 구분이 되어 있을 뿐이다. 뜻풀이가 다르고 동음어를 다르게 판별했지만 사전 편찬 태도의 문제일 뿐이라고 보아 이런 것들도 동일한 접미사로 보았다.

- (7) **-동이**⁰²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성질이 있거나 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귀염동이/막내동이/해방동이/바람동이.』
- (7) **-동이**² 일부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 그 명사나 어근이 뜻하는 특징을 지닌 사람이나 동물을 귀엽게 또는 홀하게 이르는 말. 『검동이/업동이/귀염동이/바람동이/재롱동이.』

(7)과 (7')을 보면 뜻풀이가 각각 하나씩이다. 그런데 (7')에는 밑줄 친 부분, 즉 ‘동물’이 더 들어갔고 용례에서도 ‘검동이’가 예로 추가되었다. 이 경우 ‘동물’을 더 추가한 『고대』에서 뜻풀이를 나누지 않은 것은 ‘사람’과 ‘동물’이 다른 뜻풀이로 구분할 정도로 의미가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하여 이런 것들도 같은 접미사로 보았다.¹²⁾

『표준』에서 ‘-당다⁰²’는 “-다랴다’의 준말.”로만 풀이되어 있다. 『고대』에서는 두 접미사의 뜻풀이를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접두사에서의 처리처럼 이 경우에도 ‘-당다⁰²’는 본말인 ‘-다랴다’의 뜻풀이를 참고하여 『고대』의 ‘-당다²’와 같은 접미사로 보았다.

Ⅲ. 한 사전에만 수록된 접미사

여기서는 『표준』이나 『고대』 중 어느 한 사전에만 접미사로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12) 두 사전의 접미사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같은 접미사로 판단했지만 뜻풀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는 ‘-도18/-도13(島)’, ‘-떼기03/-떼기2’, ‘-좌06/-좌6(座)’이 더 있었다. 그리고 ‘-족07/-족7(族)’의 경우는 『표준』 인터넷판에서 ‘바이올린족’이라는 예의 뜻을 포괄하기 위해 ‘사물’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뜻풀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록 한다. 이러한 차이는 접두사와 마찬가지로 접사 선정 기준이 달라 생긴 차이로 해석된다. 『표준』의 접사 표제어는 ‘분석 가능성, 비자립성, 생산성, 의미 독자성’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이 원칙은 파생어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접사에만 적용되며, 여기와 접사의 의미론적 성격으로 파생어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어서 이러한 성격의 접사(‘-가(哥), -당(當), -가웃, -꼴, -끼리’ 등)는 위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접사로 처리한다고 하였다(국립국어연구원 2000:51-52). 『고대』는 전체 형태 분석의 요건으로 ‘공시적 분석 가능성’을 들고 이를 접사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접미사의 경우도 한글 맞춤법의 표기 원칙을 기준으로 공시적 분석을 진행하는 ‘공시적 분석 가능성’이 표제어 선정 기준이 된다. 이것은 『표준』의 ‘분석 가능성’을 공시적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공시적으로 여기와 접사의 분철이 보장되지 않는 ‘-무레’, ‘-스레’ 등을 접사 목록에서 배제하고 있다. 『고대』는 접미사 선정 기준을 따로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항상 접미 위치에 있을 것, 어기의 문법 범주를 지배할 것, 여기에 범주 의미를 추가할 것, 여기와 분철 가능할 것(홍종선·김양진 2012:341-342)’ 등이다. 이러한 편찬 태도의 차이로 접사 목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먼저 『표준』에만 있는 접미사부터 보도록 하자. 고유어 19개, 한자어 64개로 총 83개이다.

- (8) ㄱ. 고유어(19): -가웃02, -결16, -들이04, -ㅁ직스릅-, -ㅁ직하-, -맞이02, -말02, -박이03, -분16, -불이02, -살이, -스레하다02, -음직스릅-, -음직하-, -이우-08, -잡이03, -직하-02, -집04, -찍하-
- ㄴ. 한자어(64): -가량06(假量), -각14(閣), -감19(感), -곡08(曲), -공17(公), -긋03(串), -과14(課), -군11(群), -권05(券), -급06(級), -남10(男), -낭08(囊), -년05(年), -농09(農), -당하다02(當--), -동20(洞), -록04(綠), -루06(樓), -모20(帽), -문11(文), -미19(米), -분지09(分之), -사39(寺), -상28(商), -선20(腺), -설12(說), -성16(成), -손12(孫), -순18(旬), -식09(式), -안08(岸), -암11(庵/菴), -암12(巖), -연하다05(然--), -옹08(翁), -왕08(王), -위20(委), -유22(油), -일09(日), -자28(子), -장42(莊), -장43(場), -재19(材), -전31(傳), -전33(殿), -정35(亭), -제20(制), -제21(祭), -제23(製), -증11(症), -증12(證), -창14(廠), -천10(川), -철07(綴), -첩07(帖), -촌04(村), -층04(層), -탕08(湯), -파11(波), -파12(派), -판

15(版), -항10(港), -해18(海), -화18(靴)

‘-ㅁ직스럽-, -ㅁ직하-’와 같은 예들이 왜 『표준』에만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는지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위 목록에서 주목되는 점은 『고대』에서 접미사로 오르지 않았지만 형태가 동일하고 의미로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단어들이 표제어로 꽤 올라 있다는 점이다. 양상이 복잡하지만 지면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가웃02’는 『표준』에만 접미사로 올랐는데 『고대』에는 의존명사로 ‘가웃1’이 있다. ‘-가량06(假量)’은 『표준』에서는 명사와 접미사로 나누어 올렸는데 『고대』에서는 명사로만 올렸다. 이처럼 『표준』에서는 접미사이지만 『고대』에서 접미사로 올라 있지 않고 단어로 올라 있는 예들을 제시하면 다음 (9)와 같다. 전체 83개 중 36개이니 적은 숫자는 아니다.

- (9) ㄱ. 고유어(4): -가웃02, -들이04, -불이02, -잡이03
 ㄴ. 한자어(32): -가량06(假量), -각14(閣), -감19(感), -곡08(曲), -공17(公), -곶03(串), -곶03(串), -과14(課-), -낭08(囊), -년05(年), -당하다02(當-), -문11(文), -선20(腺), -설12(說), -식09(式), -암11(庵/菴), -옹08(翁), -왕08(王), -일09(日), -자28(子), -장43(場), -증11(症), -증12(證), -철07(綴), -촌04(村), -층04(層), -탕08(湯), -파11(波), -파12(派), -판15(版), -항10(港), -화18(靴)

정리하자면 『표준』에만 있는 접미사는 ‘-ㅁ직스럽-, -ㅁ직하-’처럼 더 분석이 가능한 접사를 하나의 표제어로 올린 것과, ‘-가량06(假量)’처럼 동일한 형태가 명사의 용법도 있어 명사와 접미사로 나누어 올린 것들이다. 『고대』에서는 분석된 각각의 형태를 올리거나 단어로만 올려 『표준』에만 있는 접미사가 된 것이다.

다음으로 『고대』에만 있는 접미사를 보자. 고유어 38개, 한자어 22개로 모두 60개이다.

- (10) ㄱ. 고유어(38): -갈다2, -거리10, -계11, -광이2, -금14, -깎, -나10, -니10, -다리4, -다지1, -대기18, -판4, -리10, -ㅁ직, -바리6, -바치1, -바치2, -부리6, -새20, -쇠6, -쇠9, -스레, -실11, -음직2, -작9, -잡다, -장34, -적18, -적다5, -정계, -죽8, -직7, -짜, -차8, -참다, -추8, -키다5, -포21

- ㄴ. 한자어(22): -교9(橋), -교10(敎), -대22(代), -대23(隊), -란2(欄), -란3(亂), -량2(量), -류4(瘤), -마13(魔), -말12(末), -방15(方), -방16(房), -부24(夫), -부25(婦), -상16(狀)¹³⁾, -소21(素), -원19(元), -원20(源), -원21(願), -종14(宗), -초26(哨), -치15(癡)

앞에서 본 『표준』의 경우와 달리 『고대』에만 있는 접미사 중에서 『표준』에 형태가 동일하고 의미로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 것으로는 ‘-같다2, -란2(欄), -량2(量), -마13(魔)’ 등 4개에 불과하다. ‘-란2(欄), -량2(量)’의 경우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난(欄), 양(量)’으로 적는 짝이 있는데 『고대』는 이것들은 명사로 처리하였다.¹⁴⁾ 『표준』에서는 ‘란(欄), 량(量)’을 ‘난(欄), 양(量)’에 맞춰 명사로 처리하였다. 『고대』에서 ‘난(欄), 양(量)’을 명사로 처리한 점이나 앞서 보았듯이 『표준』에만 접미사로 오른 것들 중에 많은 수를 단어로 사전에 올린 것을 보면 접미사와 단어 쓰임이 둘 다 있는 예들은 『고대』가 단어로 처리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¹⁵⁾

IV. 두 사전에 모두 수록된 접미사

『표준』과 『고대』 두 사전에 모두 수록된 접미사는 뜻을 비교하여 뜻풀이의

-
- 13) 『고대』에는 한자가 같지만 동음어로 분리한 ‘상15(狀)’와 ‘상16(狀)’이 올라 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2ㄱ)이 『표준』에서 인용한 1)과 뜻풀이 범위가 일치한다. 그래서 1)의 ‘상27(狀)’과 2ㄱ)의 ‘상15(狀)’는 두 사전에 있는 접미사 예에 포함하였고 2ㄴ)의 ‘상16(狀)’은 『고대』에만 있는 접미사 예에 포함하였다.
- 1) 상27(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모양’ 또는 ‘상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계단상/나선상/원반상/포도상.
- 2) ㄱ. 상15(狀) 일부 한자어 뒤에 붙어, 모양이나 상태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방사상/나선상/연쇄상/포도상.
 ㄴ. 상16(狀) 나쁜 행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행위가 저질러진 양상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위법상/죄상.
- 14) ‘-란3(亂)’의 짝인 ‘난2(亂)’도 명사로 처리하였다.
- 15) ‘꾸러기1/-꾸러기2’, ‘청5/-청11(廳)’처럼 『고대』에서 단어와 접미사를 동시에 인정한 예들이 있는 것을 보면 단어와 접미사의 쓰임이 있을 때 단어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는 않은 듯하다.

동일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다. 두 사전의 뜻풀이 범위가 다른 접미사는 『표준』에서 뜻풀이 범위를 더 넓게 설정한 접미사, 『고대』에서 뜻풀이 범위를 더 넓게 설정한 접미사로 나누고 상대 사전에서 동음어로 처리한 예도 포함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 뜻풀이 범위가 다른 접미사

먼저 『표준』에서 뜻풀이 범위를 더 넓게 잡은 접미사는 11개가 확인되었다. 지면 관계상 『표준』에서 더 넓게 설정한 뜻풀이 부분만 제시하도록 한다.¹⁶⁾

- (11) **-꾼02/-꾼2** ④‘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 낫잡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과거꾼/건설꾼/도망꾼/뜨내기꾼/마름꾼/머슴꾼/모사꾼. ⑤‘어떤 사물이나 특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건설성꾼/찌꾼/털링꾼/만석꾼/재주꾼/천석꾼.
- (12) **-씩03/-씩3** ②《일부 명사 뒤에 붙어》 화자가 예상하거나 기대한 수준을 넘어서는 말 뒤에서 ‘아주 뜻밖’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속성이나 정도의 강조를 나타낸다. 주로 ‘씩이나’ 꼴로 쓰인다.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고기씩이나 사 왔니?

고유어 접미사는 (11), (12)에 제시했듯이 2개의 예가 있다. 『표준』에서만 확인되는 이 뜻풀이들은 공교롭게도 『표준』 인터넷판에서 추가된 것들이다.

다음은 한자어 접미사이다.

- (13) **-경24/-경18(頃)** ②《일부 특정한 절차를 나타내는 한자 구성 뒤에 붙어》 ‘그 일에 걸리는 정도의 시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일다경/탄지경.
- (14) **-계19/-계22(界)** ③《일부 명사 뒤에 붙어》 ‘세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물질계/가상계.

16) 사전에서 자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고대』의 순서로 표제어를 함께 제시하고 뜻풀이 번호는 사전에서의 번호 그대로 둔다.

- (15) **-로10/-로4(路)** ②《몇몇 고유 명사 뒤에 붙어》 ‘큰 도로를 가운데 둔 동네’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세종로/을지로/충무로.
- (16) **-생08/-생6(生)** ②《인명의 성(姓)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젊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생/김생.
- (17) **-작10/-작10(作)** ① ‘작품’, ‘제작’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당선작/대표작/데뷔작/성공작/실패작/야심작/최신작/출세작.
- (18) **-체10/-체9(體)** ① ‘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건강체/허약체. …… ④ ‘글씨 따위에 나타나는 일정한 방식이나 격식’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고딕체/명조체/흘림체.
- (19) **-통19/-통16(通)** ② ‘거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광화문통/종로통.
- (20) **-하12/-하12(下)** ② 아래 또는 아래쪽이나 밑. 『교각하 추락 주의./선반하 적치 금지.
- (21) **-회14/-회14(會)** ② ‘모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송별회/환송회/환영회.

모두 9개로 숫자상으로 보면 『표준』에서 뜻풀이 범위를 넓게 설정한 예들은 고유어 접미사보다 상대적으로 한자어 접미사가 많다.¹⁷⁾ (13)에서 (21)까지 9개의 접미사 중에서 (14)의 ‘-계(界)’, (20)의 ‘-하(下)’의 뜻풀이는 인터넷판에서 추가된 것이다. (17) ‘-작(作)’은 관련이 되는 단어가 『고대』에 명사 표제어로 올라 있다. 『고대』는 『표준』 종이사전을 검토한 후 풀이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표준』 인터넷판에서 추가된 (14)의 ‘-계(界)’, (20)의 ‘-하(下)’를 제외하면 나머지 7개의 예는 『고대』의 편찬 태도에 맞지 않아 삭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대』에서 뜻풀이 범위를 더 넓게 잡은 접미사를 보자. 『고대』 기준으로 27개가 확인되었다. 여기서도 『고대』에서 더 넓게 설정한 뜻풀이 부분만 제시하도록 한다.¹⁸⁾ 먼저 고유어 접미사부터 보도록 한다.

- (22) **-거리09/-거리9** ③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성행위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낮거리/감투거리.

17) 이는 다음에 살펴볼 『고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고대』도 뜻풀이 범위가 더 넓은 예가 고유어보다 한자어 접미사가 더 많다.

18) 표제어의 제시 순서는 『표준』/『고대』의 순서를 그대로 지키도록 한다.

- (23) **-네08/-네10** ⑤일부 토속 종교에서, 신(神)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그 신을 높여 이르는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설문대 할마님네 /제석님네.
- (24) **-씨08/-씨9** ②사람의 신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의 뒤에 붙어, 그 대상을 높이는 뜻을 더하는 말. 『아기씨/아줌씨/갈비씨/뚝별씨.
- (25) **-지기13/-지기11** ③일부 명사 뒤에 붙어, 쌀이나 부스르기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가루지기.
- (26) **-지다10/-지다10** ②상태나 현상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상태나 현상이 겉으로 드러나거나 이루어지다’의 뜻을 더하여 동사를 만드는 말. 『한숨지다/눈물지다/그늘지다/빛지다/덩굴지다/가장귀지다/덤불지다/칫물지다.
- (27) **-치17/-치13** ②일정한 모양이나 형태, 속성 따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혹은 서술어의 어간 뒤에 붙어, 그러한 모양이나 형태, 속성 따위를 띠는 물고기임을 나타내는 말. 『날치/바닥치/비늘치/새치/쥐치/창치.

모두 6개의 접미사가 확인되었다. (24)의 ‘-씨08/-씨9’는 ‘말씨, 마음씨’처럼 태도나 모양을 나타내는 접미사 ‘-씨’에 추가된 뜻풀이다. 그런데 다음에서 볼 (37)의 ‘-씨09/-씨10(氏)’에도 똑같은 뜻풀이가 추가되었다. 『고대』 ‘-씨9’에 제시된 ‘어법’ 설명에 따르면 ‘-씨’는 고유어와 결합한 경우에는 고유어 접미사 ‘-씨’로, 한자어와 결합한 경우에는 한자어 접미사 ‘-氏’로 처리하였다.¹⁹⁾

다음은 한자어 접미사이다.

- (28) **-광07(狂)/-광8(狂)** ②일부 명사 뒤에 붙어, ‘거기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과대광/패덕광/망상광/편집광.
- (29) **-기43(器)/-기33(器)** ③용도나 재료를 나타내는 일부 한자어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용도로 만들어진 그릇 또는 그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반상기/퇴주기/세면기/도자기.
- (30) **-도17(度)/-도16(度)** ①일부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 정도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개구도/건강도/건조도/경사도.

19) 『표준』에서는 ‘갈비씨’의 ‘씨’를 ‘氏’로 보았다.

- (31) **-령08(領)/-령3(領)** ②일부 신체의 작용과 관련한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작용을 하는 부위나 영역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시각령/연합령/운동령.
- (32) **-류02(流)/-류3(流)** ①액체나 공기, 전기 등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흐름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전자류/순환류/연안류/용암류/적도류. …… ③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방식이나 양식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서양류/자기류/자아류.
- (33) **-률03(律)/-률1(律)** ②‘ㄴ’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운율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정형률. ③‘ㄴ’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규정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 (34) **-율03(律)/-율4(律)** ①모음이나 ‘ㄴ’으로 끝나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규정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불문율/고려율/심사율. …… ③모음이나 ‘ㄴ’으로 끝나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운율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기본율/음보율/음수율/음위율/내재율/외재율.
- (35) **-물09(物)/-물9(物)** ②일부 명사 뒤에 붙어, 출판 서적이거나 복사 문건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추리물/전기물/인쇄물/계시물. ③일부 명사 뒤에 붙어, 방송용 프로그램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시대물/음란물/폭력물/멜로물/액션물. ④일부 명사 뒤에 붙어, 건물이나 시설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건설물/시설물/장식물.
- (36) **-부23(部)/-부26(部)** ①방향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위치의 부분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동남부/북서부/남단부/남반부/하반부/하단부/물관부/체관부.
- (37) **-씨09(氏)/-씨10(氏)** ②사람의 신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의 뒤에 붙어, 그 대상을 높이는 뜻을 더하는 말. 『형수씨/계수씨/계수씨/무명씨.
- (38) **-자29(子)/-자20(子)** ③일부 명사나 불완전 어근 뒤에 붙어, 어떤 식물의 씨 혹은 그러한 씨를 갖는 식물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결명자/구기자/오미자.
- (39) **-자30(者)/-자19(者)** ③자연과 관련된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일이나 역할을 하는 생물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포식자/포괄

자/분해자. ④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성질이나 상태에 있는 대상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유한자/동일자/무한자.

(40) **-행07(行)//-행5(行)** ②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목적을 위해 떠남’의 뜻을 더하는 말. ㉠유학행/귀국행/도피행.

(41) **-형07(形)-형8(形)** ②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런 유형이나 형식의 뜻을 더하는 말. ㉠개방형/서술형/선택형/유동형/의문형.

모두 14개로 6개에서 뜻풀이 범위가 더 넓은 것이 확인된 고유어 접미사보다 개수가 훨씬 많다. 앞서 지적했듯이 『표준』과 『고대』 모두 한자어 접미사에서 추가된 뜻풀이가 고유어 접미사에서보다 더 많이 확인되었다. 특히 『고대』의 경우 고유어 접미사와 한자어 접미사의 전체 개수가 『표준』만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한자어 접미사에서 『표준』보다 뜻풀이 범위가 더 넓은 것이 고유어 접미사보다 2.3배가량 많다. 그동안 한자어 접미사가 관심을 덜 끌었던 만큼 사전에서도 고유어 접미사보다 한자어 접미사의 쓰임에 대한 뜻풀이가 미흡하였는데 형태 분석 정보를 제공한 『고대』에서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이들 14개의 접미사에서 뜻풀이가 2개 이상 추가된 것도 여러 개 있고 (35)의 ‘-물09(物)-물9(物)’에서는 뜻풀이가 3개가 더 늘어났다.

(33)의 ‘-률03(律)-률1(律)’과 (34)의 ‘-율03(律)-율4(律)’는 뜻풀이 순서는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의 뜻풀이가 추가되었다. ‘-률/-율’은 동일한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이므로 하나의 형태소로 봄이 타당하나 본고에서는 이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사전의 표제어를 기준으로 다루었으며 두 개를 별개로 제시하였다. 하나의 형태소이므로 뜻풀이가 동일한 것은 당연하다. (36)의 ‘-부23(部)-부26(部)’의 경우는 『표준』 인터넷판에서 “‘업무 부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라는 뜻풀이를 추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 개의 뜻풀이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이 되었다.

다음은 『고대』의 뜻풀이 범위가 더 넓은 예 가운데 『표준』에서 동음어로 처리한 예이다. 『고대』 기준으로 ‘-이26’ 하나이다.

(42) **-이30** 《받침 있는 사람의 이름 뒤에 붙어》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 ㉠갑순이/갑돌이.

-이33 《일부 수사, 명사 뒤에 붙어》 ‘그 수량의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ㄷ이/셋이/여섯이

- (42') -이26 ①자음으로 끝나는 사람 이름 뒤에 붙어, 그 사람을 자신과 동년배나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뜻을 더하는 말. 흔히 친근한 사이에 쓴다. ㄷ영순이/성철이/영진이/최강철이/배영환이. ②일부 수사에 붙어, ‘그만큼의 사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주로 열 이하의 적은 수에 결합한다. ㄷ셋이/여섯이/우리 둘이는 서로 사랑한다. ③일부 한자어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한 속성을 가진 동물’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ㄷ송충이/호랑이.

(42)의 ‘-이33’은 『표준』 인터넷판에서 추가된 것이다. 그 결과 (42')의 ‘-이26’에서 한 개의 뜻풀이만 더 있는 것이 되었다.²⁰⁾

다음은 『고대』에서 동음어로 처리한 것을 『표준』에서 한 표제어로 다루고 있는 예이다.

- (43) -기38 ①《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ㄷ안기다/뜯기다/담기다/찢기다/쫓기다. ②《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ㄷ신기다/남기다/웃기다/말기다/웁기다.
- (43') -기다9 ‘ㄴ’, ‘ㄷ’, ‘ㄹ’, ‘ㄱ’, ‘ㅈ’, ‘ㅊ’, ‘ㅌ’, ‘ㅍ’ 등의 자음으로 끝나는 일부 타동사 어간에 붙어, ‘남으로부터 그 동작을 입게 되다’의 뜻을 더하여 자동사로 만드는 말. ㄷ안기다/믿기다/담기다/벗기다/찢기다/쫓기다.
- 기다10 ‘ㄴ’, ‘ㄹ’, ‘ㄱ’, ‘ㅈ’, ‘ㅊ’, ‘ㅌ’, ‘ㅍ’ 등의 자음으로 끝나는 일부 동사 어간에 붙어,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다’의 뜻을 더하여 그 동사를 사동의 타동사로 만드는 말. ㄷ신기다/남기다/웃기다/뜯기다/찢기다/말기다/웁기다.
- 기다11 일부 형용사 어간에 붙어,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함’의 뜻을 더하여 타동사로 만드는 말. ㄷ검기다.
- (44) -리18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①‘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ㄷ날리다/울리다/끓리다/살리다/알리다. ②‘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20) 이것과 별도로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가 『표준』에 ‘-이29’로 따로 있는데 그것이 『고대』에서는 ‘-이27/-이28/-이29’ 3개의 동음어로 나누어져 제시되었다.

『갈리다/팔리다/널리다/밀리다/빨리다/뚫리다.

(44') -리다1 ‘ㄹ’, ‘ळ’ 또는 ‘르’로 끝난 일부 자동사의 어근에 붙어, ‘그 동작을 하게 하다’의 뜻을 더하여 사동의 타동사를 만드는 말. 『갈리다/굴리다.

-리다2 ‘ㄹ’, ‘ळ’ 또는 ‘르’로 끝난 일부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그러한 모양이나 상태로 만들다’의 뜻을 더하여 타동사를 만드는 말. 『둥글리다/둥글리다.

-리다3 ①‘ㄹ’, ‘ळ’ 또는 ‘르’로 끝난 일부 타동사의 어근에 붙어, ‘그 동작을 입게 하다’의 뜻을 더하여 자동사를 만드는 말. 『몸통이 잘리다/다리가 흔들리다/몸이 떨리다. ②‘ㄹ’, ‘ळ’ 또는 ‘르’로 끝난 일부 타동사의 어근에 붙어, ‘그 동작을 입게 하다’의 뜻을 더하여 타동사를 만드는 말. 『나무의 몸통이 전기톱에 잘리다.

(43'),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대』에서는 접미사가 결합하는 어기의 종류가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로 달라질 때 이를 동음어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일부 형용사 어기에 붙어 파생어를 형성하는 접미사의 경우는 『표준』에 풀이되어 있지 않아 『고대』의 뜻풀이 범위가 넓은 예에 포함했다.²¹⁾

2. 뜻풀이 범위가 같은 접미사

여기에 속하는 것은 두 사전의 뜻풀이 개수가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개수를 달리하면서 더 세밀하게 풀이한 경우도 있다. 나누어서 보도록 하자.

먼저 뜻풀이의 개수가 같은 것을 보자. 모두 184개이다.

(45) ㄱ. 고유어(58): -가마리(-가마리), -개13(-개11), -거리10(-거리8), -거리다02(-거리다2), -구22(-구다), -긋다03(-긋다3), -까짓02(-까짓2), -깎04(-깎4), -꼳(-꼳), -꼳05(-꼳3), -꾸러기(-꾸러기2), -끼리(-끼리2), -나다02(-나다3), -내11(-내10), -내기07(-내기5), -다랗다(-다랗다), -닿다

21) 반대의 경우, 즉 『표준』의 뜻풀이 범위가 넓은 예 가운데는 이미 보았듯이 어느 한 사전이 동음어로 뜻풀이를 나눈 사례는 없었다.

02(-닿다2), -대가리02(-대가리2), -대다03(-대다3), -데기03(-데기5), -
 둥이02(-둥이2), -드리다(-드리다7), -딱지05(-딱지5), -때기03(-때기
 2), -뜨리다(-뜨리다), -롭다(-롭다), -막09(-막12), -맞다04(-맞다4), -
 머리06(-머리6), -바가지02(-바가지2), -받다04(-받다4), -발14(-발11),
 -뱅이(-뱅이2), -보22(-보21), -보23(-보20), -뿔03(-뿔3), -스렵다(-스렵
 다2), -스름하다(-스름하다), -아치08(-아치7), -애-11(-애다), -어치
 04(-어치3), -으키(-으키다), -이다05(-이다7), -이키-02(-이키다), -장
 이03(-장이2), -쟁이02(-쟁이), -지기14(-지기12), -집05(-집4), -짜11(-
 짜11), -쩍다(-쩍다), -쫘02(-쫘), -채20(-채16), -치-16(-치다15), -치레
 02(-치레2), -코06(-코5), -통이(-통이), -트리다(-트리다), -히07(-히6)

ㄴ. 한자어(126): -가14(-가17)(家), -가15(-가13)(家), -가18(-가15)(歌), -
 가19(-가14)(價), -객02(-객3)(客), -계16(-계20)(系), -계17(-계18)(屆),
 -계18(-계21)(係), -계20(-계19)(計), -고30(-고17)(高), -공16(-공12)
 (工), -관18(-관18)(官), -관19(-관16)(館), -관20(-관17)(觀), -광08(-광
 9)(鑛), -구23(-구19)(口), -구24(-구18)(具), -국09(-국11)(局), -국10(-
 국10)(國), -권06(-권5)(圈), -권07(-권6)(權), -금14(-금15)(金), -기41(-
 기31)(記), -기42(-기34)(期), -기44(-기32)(機), -난12(-난8)(難), -녀
 02(-녀)(女), -단22(-단16)(團), -담16(-담12)(談), -대19(-대17)(代), -대
 22(-대19)(臺), -택02(-택2)(宅), -도18(-도13)(島), -도19(-도15)(徒), -
 도21(-도14)(圖), -력02(-력1)(力), -력03(-력2)(曆), -령09(-령4)(嶺), -
 로11(-로5)(爐), -록05(-록2)(錄), -론03(-론3)(論), -률04(-률2)(率), -리
 19(-리11)(裡/裏), -림04(-림3)(林), -마13(-마7)(媽), -민07(-민7)(民), -
 배11(-배12)(輩), -백10(-백9)(白), -범09(-범7)(犯), -법03(-법2)(法), -
 별04(-별3)(別), -보24(-보22)(補), -본08(-본7)(本), -부21(-부27)(附), -
 분15(-분13)(分), -비33(-비26)(費), -사37(-사36)(士), -사38(-사38)(史),
 -사40(-사33)(事), -사41(-사35)(社), -사42(-사34)(師), -사43(-사37)
 (詞), -사44(-사39)(辭), -산08(-산9)(産), -상27(-상15)(狀), -생07(-생
 8)(生), -석14(-석15)(席), -선19(-선18)(船), -선21(-선17)(線), -선22(-
 선19)(選), -성17(-성13)(性), -소23(-소20)(所), -수34(-수26)(囚), -순
 19(-순16)(順), -술10(-술10)(術), -시28(-시25)(視), -실12(-실12)(室), -
 심09(-심11)(心), -아12(-아10)(兒), -애13(-애11)(愛), -액07(-액5)(額),
 -양28(-양21)(洋), -양30(-양20)(孃), -어08(-어8)(語), -업05(-업5)(業),
 -여27(-여21)(餘), -연25(-연20)(然), -욕03(-욕2)(欲/慾), -원17(-원17)

(員), -율04(-율3)(率), -장37(-장40)(丈), -장38(-장38)(狀), -장40(-장37)(長), -전32(-전30)(展), -전34(-전29)(戰), -점11(-점8)(店), -정36(-정29)(艇), -정37(-정32)(整), -정38(-정31)(錠), -제24(-제21)(劑), -조27(-조23)(祖), -족07(-족7)(族), -종16(-종15)(種), -좌06(-좌6)(座), -주31(-주31)(主), -주32(-주30)(酒), -지27(-지17)(紙), -지26(-지20)(池), -지28(-지21)(誌), -진33(-진35)(陣), -집06(-집5)(集), -중(-중)(重▼), -차12(-차9)(次), -책08(-책6)(責), -책09(-책5)(策), -청11(-청11)(廳), -치18(-치14)(值), -판14(-판12)(判/版), -풍12(-풍12)(風), -필10(-필8)(畢), -학07(-학5)(學), -허08(-허7)(許), -형08(-형7)(型), -호19(-호18)(號), -화16(-화9)(化), -화17(-화8)(畫)

두 사전에서 뜻풀이의 범위뿐 아니라 개수까지 동일한 예들이어서 같은 접미사로 보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들이다. 다만 ‘-개13/-개11’, ‘-원17/-원17(員)’, ‘-쟁이02/-쟁이’, ‘-지26/-지20(池)’, ‘-치레02/-치레2’의 경우는 『표준』 인터넷판에서 뜻풀이가 추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같아진 것들이다. 이에 비해 ‘-관19/-관16(館)’은 『표준』의 ②번 뜻풀이였던 “음식점”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명월관/한국관』가 삭제되어 같아진 유일한 예이다. 『고대』 인터넷판이 수정되면서 같아진 것은 ‘-스름하다/-스름하다’가 유일하다.

다음은 『고대』에 동음어로 분리되어 있지만 두 사전의 뜻풀이 개수는 같은 예이다. 『표준』을 기준으로 고유어 6개, 한자어 3개 총 9개의 접미사가 있다.

- (46) ㄱ. 고유어(6): -되다05(-되다5/-되다6), -배기05(-배기4/-배기5), -이-31(-이다5/-이다6/-이다8), -이32(-이30/-이31), -추-09(-추다5/-추다6), -히-06(-히다3/-히다4/-히다5)
- ㄴ. 한자어(3): -간16(-간18/-간19)(間), -료02(-료1/-료2)(料), -지25(-지18/-지19)(地)

다음은 같은 접미사로 분류했지만 『표준』보다 『고대』가 뜻풀이를 세분하여 제시한 예들이다. 고유어 16개, 한자어 19개로 총 35개이다.

- (47) ㄱ. 고유어(16): -기39(-기28/-기29), -깨05(-깨7), -답다01(-답다2), -들09(-

- 들6), -뜨기(-뜨기), -ㅁ03(-ㅁ1), -매19(-매23), -새15(-새21), -시키다
02(-시키다2), -우-18(-우다1), -음10(-음7), -이29(-이27/-이28), -이
29(-이29), -짜리02(-짜리), -째01/-째02(-째), -투성이(-투성이)
ㄴ. 한자어(19): -가13(-가16)(哥), -가17(-가11)(街), -기40(-기30)(氣), -당
16(-당14)(當), -대20(-대20)(帶), -령07(-령2)(令), -류03(-류2)(類), -발
15(-발12)(發), -복17(-복15)(服), -용11(-용9)(用), -원18(-원16)(院), -
원19(-원18)(園), -인17(-인14)(人), -장44(-장36)(葬), -적18(-적19)(的),
-조28(-조24)(朝), -처06(-처5)(處), -품08(-품6)(品), -한15(-한14)(漢)

(47ㄱ)의 밑줄 친 ‘-기39, -이29’ 2개는 『고대』에서 동음어로, ‘-째01/-째02’는 『표준』에서 동음어로 분리한 예이다. 3개의 접미사가 상대 사전에서 동음어로 처리되었으나 뜻풀이 범위는 동일하다.

이에 비해 『표준』이 뜻풀이를 더 세분한 것은 아래의 8개에 불과하다. 이중에서 ‘-님04’, ‘-빼기04’, ‘-상26(上)’, ‘-질11’은 『표준』 인터넷판에서 수정이 된 결과로 더 세분되었다.

- (48) -경26(-경17)(鏡), -님04(-님5), -빼기04(-빼기4), -상26(-상14)(上), -수33(-
수28)(手), -장41(-장41)(帳), -질11(-질9), -하다02(-하다3)

이상의 자료를 통해 동일한 뜻풀이를 제시할 때 『고대』가 『표준』보다 전반적으로 뜻풀이를 더 세분하여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표준』과 『고대』 사전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다시 강조하지만 본고에서 새로운 접미사 목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 교육 등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접사를 선별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두 사전의 비교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고는 조남호·노명희(2021)의 접두사 수록 양상을 비교한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접미사에 대해서도 『표준』(1999)과 『고대』(2009)의 목록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표준』의 354개 접미사와 『고대』의 347개 접미사 표제어를 비교하여 한 사전에만 수록된 접미사와 두 사전에 모두 수록된 접미사를 분류하고, 두 사전에 모두 수록된 접미사는 뜻을풀이를 대조하여 의미 범위를 살펴보았다.

한 사전에만 있는 접미사 가운데 『표준』에만 수록된 접미사의 특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대』와 달리 『표준』은 ‘-ㅁ직’과 같은 접미사를 따로 분석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면서 ‘-ㅁ직스럽-, -ㅁ직하-’와 같은 접사가 표제어로 올라 있다. 즉 『고대』에는 분석된 형태들이 접사 목록에 포함되어 위의 예들은 『표준』에만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는 ‘-가량06(假量), -곡08(曲)’ 등 명사와 접미사의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 예들을 『표준』은 나누어 올렸는데 『고대』는 단어로만 올렸다. 이에 따라 이들은 『표준』에만 접미사로 등재되어 있다.

두 사전에 모두 수록된 접미사 가운데 뜻풀이 범위가 넓은 접미사는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더 많았다. 『표준』은 고유어 2개, 한자어 9개로, 『고대』는 고유어 6개, 한자어 14개로 두 사전 모두 한자어 접미사에 추가된 뜻풀이가 많이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한자어 접미사의 뜻풀이가 미흡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두 사전의 뜻풀이 범위가 같은 접미사 가운데 뜻풀이 개수까지 같은 예가 184개(고유어 58개, 한자어 126개)이다. 이에 비해 『고대』가 뜻풀이를 세분하여 제시한 예가 35개, 『표준』이 뜻풀이를 세분한 것은 8개에 불과하여 뜻풀이를 제시할 때 『고대』가 『표준』보다 더 많이 세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두 사전의 뜻풀이 범위를 비교한 결과 『고대』가 『표준』보다 뜻풀이를 더 추가하거나 세분하여 제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가 형태 분석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표제어들을 분석하면서 추출된 자료를 접사 선정에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편, 『한국어대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8
- 고영근,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 광문사, 1974
- _____, 『국어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1999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국립국어연구원, 2000
- 김계곤,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박이정, 1996
- 노명희,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국어학총서 49, 국어학회, 태학사, 1998/2005
- 송철의,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국어학총서 18, 국어학회, 태학사, 1992
- 이운영, 『「표준국어대사전」의 연구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2002
- 하치근, 『국어 파생형태론』, 남명문화사, 1989
- 구본관, 「접미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8(1), 국립국어연구원, 1998
- _____, 「파생접미사의 범위」, 『형태론』 1, 형태론학회, 1999
- 김계곤, 「현대 국어의 조어법(word-formation) 연구: 뒷가지(suffix)에 의한 파생법」, 『논문집』 4, 인천교육대학교, 1969
- 김규철, 「한자어 단어형성에 대하여」, 『국어학』 29, 국어학회, 1997
- 김창섭, 「국어 파생접사와 파생어의 사전적 기술」, 『애산학보』 16, 애산학회, 1995
- 이병근, 「국어사전과 파생어」, 『어학연구』 22(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86
- 임동훈, 「‘직하다’ 구문의 문법」, 『이병근 선생 퇴임 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2006
- 정호성,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 10(1), 국립국어연구원, 2000
- 조남호, 「현대국어의 파생 접미사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8
- 조남호 · 노명희, 「국어사전에 수록된 접두사 비교 검토」, 『어문연구』 1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1
- 홍종선 · 김양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접사 선정의 기준-‘공시적 분석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54, 한국어학회, 2012

Examining Suffix Entries in Korean Dictionaries — Using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and 『Korea University Korean Dictionary』

Cho, Nam-ho · Noh, Myung-hee

This paper aims to examine all the suffixes which are entries of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SKLD』(1999) and 『Korea University Korean Dictionary, KUKD』(2009). First,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commonality and differences between 354 suffixes of SKLD and 346 suffixes of KUKD. As a result, 83 suffixes are identified to appear only in SKLD while 60 suffixes are identified to appear only in KUKD. Among SKLD-only suffixes, there are two kinds of entries where the one is related to more analyzable suffixes, the other is related to double word classes such as noun and suffix. Second,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meaning definitions of common suffix entries of both dictionaries. Both dictionaries show that Sino-Korean suffixes have more extensive meaning ranges than native Korean suffixes. Among the entries with the same meaning ranges, 184 entries are identical with regard to the number of senses, and KUKD shows the finer sense differentiation than SKLD.

Key Words : affix, suffix, dictionary entry, meaning definition, polyseme, homonym

